

제33회 광주시양궁협회장기 종별대회 내일 열전 돌입

광주양궁, 현재와 미래를 만나다

초·중·고·대·실업팀 200여명 참가... '우의 다지고 추억 만들고' 안산·최미선·최민선·오예진·이승윤 등 전·현 국가대표 총출동

'광주 양궁'을 빛낸 스타선수들과 꿈나무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량을 겨루는 제33회 광주시양궁협회장기 종별대회가 10일 광주국제양궁장에서 열린다.

광주시양궁협회가 주최·주관하는 이번 대회에는 성진·염주·문산·두암·삼정·유춘초 등 남녀 초등부 6개 팀, 동명·우리·광주체육중(남여) 등 중등부 4개 팀, 고등부 광주체고(남여), 대학부 조선대(남)·광주여대, 실업팀 남구청(남)·광주시청(여)·광주은행(여) 등 선수·지도자 200여명이 참가한다.

1988년 광주시양궁협회가 창립된 이후 매년 열렸던 광주시양궁협회장기 종별대회는 그동안 대한민국 양궁 발전에 큰 기틀을 마련한 유서 깊은 대회로 명실상부 국가대표 등용문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012년 런던올림픽 2관왕 기보배를 비롯해 2016리우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최미선(광주은행 텐텐양궁단), 2020도쿄올림픽 3관왕 안산(광주은행 텐텐양궁단) 등이 대회를 통해 기량과 꿈을 키웠다.

또한 2004년 아테네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장용호, 2008년 베이징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주현정도 광주 출신으로 광주시양궁협회장기가 배출한 스타들이다.

특히 이승윤(남구청), 최미선·안산(이상 광주은행 텐텐양궁단), 최민선·김수린(이상 광주시청), 오예진(광주여대) 등 전·현직 국가대표 선수들과 양궁 꿈나무들이 같은 장소에서

양궁으로 소통하고, 멘토와 멘티로서의 유대감을 키워가며 뜻 깊은 추억을 만들어가는 대회가 그 의미가 크다.

초등부와 중등부는 오는 25일 열리는 전국소년체전을 앞둔 마지막 실전대회로 경기력 점검에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싱글라운드로 진행되는 초등부를 제외한 종별은 9일 2차례 거리별 경기를 사전 진행한다.

김광이 광주시양궁협회장은 "33년 전통의 협회장기는 빛고를 양궁 전 종별 선수들이 모여 실력도 쌓고 선·후배우의도 다지는 대회임은 물론 빛나는 광주양궁의 역사와 전통을 이어가는 뜻 깊은 대회"라며 "대회에 참가한 모두가 최고의 선수라는 자부심으로 경기력 향상과 기술 개발에 최선을 다해 좋은 결과를 거두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희중 기자



제7회 대한검도회장기 전국중·고등학교 검도대회에서 3년 만에 통합단체전 우승을 차지한 서석고검도부 선수단이 단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석고 제공>

서석고 검도, 통합단체전 우승

회장기 전국중고 검도, 1학년부 3인조 단체전 준우승

서석고 검도부가 제7회 대한검도회장기 전국중고등학교 검도대회에서 3년 만에 통합단체전 우승을 차지했다.

서석고는 지난 2-5일 경남 남해군실내체육관에서 열린 대회 통합단체전 결승전에서 인천고를 3-1로 제압하며 최강팀의 면모를 과시했다.

서석고는 선봉 서규원(2년), 2위 정우민(1년), 2위 정우민(1년), 3위 박기주(3년)가 연속으로 비기는 팽팽한 승부를 이어가다 중견 강현우(2년), 5위 오승준(1년), 부장 이정환(2년)이 각각 2대0으로 승리하며 3점을 따낸 후 서석고는 8강전에서 춘계대회 우승

팀인 과천고를 상대로 매치스코어 2대2(4) 승부를 가리지 못하고 대표전(서석고 주장 이윤성)까지 가는 접전 끝에 이윤성의 머리치기 특점으로 준결승에 진출했다.

준결승에서는 성남고를 상대로 매치스코어 2대2(4:2) 승리해 결승에 진출했다.

학년별 단체전에 출전한 서석고는 1학년부 3인조 단체전(오승준, 정우민, 채희준, 김기훈)에서는 준우승을 차지했다.

한편, 서석중은 학년별 개인전에서 1학년부 허경도가 우승, 2학년부 개인전 옥하준이 준우승을 차지했다.

서석고는 8강전에서 춘계대회 우승 /박희중 기자

'반등세' 탄 광주, '달구벌 무패' 잇는다

오는 11일 오후 7시 대구FC 원정 맞대결

탄탄해진 '방패'·더 강해진 '창' 무장 3연승 도전 부담스런 홈 울산·전북전 앞두고 승점쌓기 호기



광주FC가 오는 11일 오후 7시 DGB대구은행파크에서 대구FC와 하나은행 K리그 2024 12라운드 원정 경기를 치른다.

최근 10경기 상대 전적은 4승 2무 4패로 팽팽하다.

지난 4라운드 광주 경기에서는 대구가 1대2로 역전승하며 올 시즌 유일한 승리를 기록했다. 하지만, 광주는 대구 원정에서 2020년 8월 이후 패배한 적이 없다. 총 5차례 달구벌 맞대결에서 4승 1무로 앞서고 있으며 이중 4점 이상 득점한 경기가 3경기나 된다.

가나긴 6연패를 끊고 제주, 대전을 연파하며 자신감을 되찾은 것도 이번 원정의 긍정적인 요소다.

광주의 상승세는 수비 안정화에 힘입은 바가 크다.

주장 안영규와 변준수가 호흡을 맞추면서 높이 싸움에서 밀리지 않게 됐고, 노련한 팀포 조절로 승점을 지키는 뒷심이 생겼다.

미드필드 라인에선 안성 히어로 박

태준 선수의 활약이 눈에 띈다. 헌신적인 수비와 많은 활동량으로 중원을 든든하게 지키고 있다. 덕분에 정호연의 수비 부담이 줄면서 팀 공격력이 강화되는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

전전후 멀티 플레이어로 거듭난 허울의 성장세도 두드러진다.

센터백과 최전방 공격수를 오가면서 알토란 같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 대전전에선 최전방 공격수로 투입돼 마수걸이 역전골을 터트렸다.

특정 이후엔 수비까지 내려와 상대의 롱볼 역습을 차단했다.

여기에, 후반 조커로 투입되는 정지용의 빠른 발 역습이 위력을 더하고 있고, 골 결정력까지 갖춘 이희균은 2경기 연속 골로 예이스 노릇을 독특하게 하고 있다.

이렇듯 공격 옵션이 다양해지면서 골을 넣기 위해 도전하는 광주식 공격 축구가 마침내 정상 궤도에 올랐다는 평가다.

대구는 최근 7경기 무승으로 최하위에 처져 있다. 새로 부임한 박정현 감독은 22세 이하 자원을 5명 이상 활용하면서 팀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이 중에는 특급 재능으로 꼽히는 황재원



광주FC 허울이 지난 6일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대전하나시티즌과의 경기에서 1대1로 맞선 후반 41분 역전 결승골을 터뜨린 후 동료들의 축하를 받고 있다. <광주FC 제공>

을 필두로 박재현, 정재상, 박용희 등 재능 있는 공격 자원들이 여럿 포진돼 있다. 박 감독 부임 후 '달구벌 무패' 불리던 역습 축구에서 벗어나 능동적인 압박 축구를 펼치는 것도 달라진 점이다. 아직 리그 첫 승을 올리지 못한 박 감독은 홈에서 펼쳐지는 광주전을 단단히 버리고 나올 것으로 보인다.

광주는 대구전이 끝나면 곧바로 홈에서 울산, 전북과 맞대결을 펼친다. 최하위 대구를 상대로 승점을 쌓아 놓아야 향후 전개될 순위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

매 경기 선발 명단에 변화를 주고 있는 이정호 감독. 팀 스타일이 바뀐 대구를 상대로는 어떤 승부수를 꺼낼지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박희중 기자



박민지 <KLPGA 제공>



박지영 <KLPGT 제공>

박지영, 시즌 3승? 박민지, 통산 3승?

내일 KLPGA 투어 NH투자증권 레이디스 챔피언십 동반출전

박지영과 박민지가 '3승'을 놓고 겨룬다.

물은 10일부터 사흘 동안 경기도 용인의 수원 컨트리클럽 뉴코스에서 열리는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NH투자증권 레이디스 챔피언십(총상금 8억원)에 나란히 출전한다.

이번 시즌에 맨 먼저 2승 고지에 오른 박지영은 시즌 3승을 노린다.

박지영이 NH투자증권 레이디스 챔피언십에서 우승한다면 2주 연속 우승과 함께 KLPGA 투어에서 올해 확실한 '대세'로 자리 잡을 수 있다.

박지영은 현재 다승, 상금(4억2천488만원), 대상 포인트, 평균타수(89.227타) 등 주요 개인 타이틀 경쟁에서 모두 선두를 달리고 있다.

장타 69, 그린 적중률 59%가 말해주는 듯 샷이 올랐고 퍼트(27%)도 상위권인 박지영은 이번 대회에서도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다.

박민지에게 NH투자증권 레이디스 챔피언십이 열리는 수원 컨트리클럽은 안방이나 다름없다.

박민지는 이 대회에서 2021년과 2022년 두차례 우승했다.

작년에는 3연패에는 실패했지만, 준우승을 차지했다.

고등학교 1학년인 오수민은 지난 3월 하나금융 싱가포르 여자오픈에서 장타를 평평 티트리며 3위에 올라 프로 언니들을 놀라게 했다. /연합뉴스

지는 그동안 처졌던 실전 감각도 살아나고 있다.

박민지가 이번 우승하면 NH투자증권 레이디스 챔피언십 통산 세 번째이자 이번 시즌 첫 우승을 일군다.

데뷔 이후 줄곧 NH투자증권 로고를 단 모자를 쓴 박민지에게 NH투자증권 레이디스 챔피언십 우승 트로피는 다른 대회와는 각별한 의미를 지닌다는 점도 의욕을 북돋운다.

박민지는 이 대회에서 또 하나의 대기록에 도전한다.

통산 상금 57억5천166만원을 받은 박민지는 이번 대회에서 89이내에 들면 장하나(57억7천494만원)를 뛰어넘어 KLPGA 투어 통산 상금 1위가 된다.

일본 원정을 다녀온 이예원과 황유민, 이정민, 김재희 등은 박지영에 이어 시즌 2승을 노리고 출사표를 냈다.

지난 대회를 윈 장타 여왕 방신실은 미국에 오가느라 쌓인 피로를 씻고 다시 시즌 첫 우승에 도전한다.

방신실은 미래의 장타 여왕으로 꼽히는 아마추어 국가대표 오수민과 장타 대결도 벌인다. 오수민은 주최 측 초청을 받아 출전한다.

고등학교 1학년인 오수민은 지난 3월 하나금융 싱가포르 여자오픈에서 장타를 평평 티트리며 3위에 올라 프로 언니들을 놀라게 했다. /연합뉴스

'생활체육으로 건강한 전남'

전남도체육회, 올해 해·달맞이 생활체육교실 16개소 운영

전남도체육회는 대한체육회 '2024년 해·달맞이 생활체육교실' 공모 사업에서 16개소를 확보하며 9천여만원의 사업비(국비)를 확보했다.

해·달맞이 생활체육교실 사업은 남

녀노소 누구나 참여 가능한 장소·시간·종목을 선정해 신청하는 무료 강습으로 지역주민들의 생활체육 참여 문화 확산과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이다. /박희중 기자

해·달맞이 생활체육교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지역별 에어로빅, 국악기 공 등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 강사를 채용해 오는 12월 중순까지 사업을 진행하고 평일 1시간씩 도민 누구나 별도의 신청 없이 수업장소를 방문하면 바로 참여가 가능하다.

전남도체육회는 지난해 운영 실적 등을 반영해 목포(4개소) 나주·무안·장성(2개소), 여수·순천·화순·영암·함평·영광 각 1개소 등 10개 시·군, 총 16개소 배정을 완료했다.

송진호 전남도체육회장은 "2024년 해·달맞이 생활체육교실 사업을 통해 전남 도민의 체력증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더불어 도민들이 집 앞에서 손쉽게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사업들을 많이 지원하고 발굴해 스포츠로 건강한 전남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희중 기자